

冥婚小説의 낭만적 경향성과 그 소설사적 의미

박 일 용

1. 서 론

명혼담은 생사를 달리하는 두 남녀 관계를 다룬 이야기이다. 이는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이한 것이지만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데, 한국 서사문학사에서는 특히 소설 발생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최초의 소설이라 이야기되고 있는 《金鰲新話》중의 대표작인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가 명혼소설이며, 《企齋記異》에 수록된 〈하생기우전〉 또한 명혼소설이다. 그리고 소설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최치원〉을 비롯한 《殊異傳》 일문 중의 몇 작품¹⁾, 조선 전기의 패설집들에 수록되어 설화에서 소설로의 이행 양상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지적되기도 하는²⁾ 〈채생이야기〉, 〈안생이야기〉 등이 모두 소설 발생기의 명혼담이다.

그간의 한국 서사문학 연구에서는 이들 명혼담이 등장하는 서사문학 작품의 시대 및 사회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거듭됨으로써, 이들의 문학

1) 수이전 일문의 장르적 성격에 대한 논란은 크게 세가지로 그 입장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임형택 교수처럼 모두를 소설로 보는 경우, 장덕순·지준모·이현홍 교수들처럼 〈최치원〉만을 소설로 보는 경우, 일반적인 문학 통사에서처럼 모두를 설화로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2) 조동일 교수는 《용제총화》의 〈안생이야기〉를 “소설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라 하면서, “소설일 수 있는 것이 설화처럼 서술되고 말았다”고 한 바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83), pp. 457~458.

적 성격이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 예컨대, 《금오신화》를 신진사류의 현실세계에 대한 도전 및 반중세의식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해석³⁾, 《금오신화》의 일부 작품을 도가적 세계관과 관련시켜 연구한 설명⁴⁾,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 등의 작품이 기일원론, 또는 일원론적 주기론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⁵⁾ 또는 사실주의적 소설이라는 설명⁶⁾, 초기 성리학 사상과 관련시킨 설명⁷⁾ 및 김시습의 사상을 존재론과 윤리론으로 나누어 각각 주리론과 주기론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⁸⁾, 만남과 단절의 의미를 부각시킨 일련의 연구⁹⁾, 금오신화를 비극적 소설로 파악한 일련의 작품론적 연구¹⁰⁾, 육망의 성취를 공통적인 특질로 하는 동유전기 양식으로 파악한 설명¹¹⁾, 그리고 기타의 연구¹²⁾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금오신화》소재의 작품, 또는 《수이전》 일문 등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다루면서, 최초의 소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소설사적 편년 문제, 그리고 김시습이라는 개별 작가의 사상적 배경과의 관계, 또는 비극적 구성의 보편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연

- 3) 정병욱, <김시습 연구>, 《《한국고전 산문 연구》, 흥성사, 1978).
- 4) 이상택, <취유부벽경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사, 1981); 이상택, <도가문학의 현실인식문제>, 《《한국문화》 7, 1986).
- 5)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 석사논문》, 1972).
- 6)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6).
- 7)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35).
- 8) 김일렬, <금오신화고찰>, 《한국고전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3).
- 9) 강진욱,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76).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 작품론》, 집문당, 1990).
- 10) 최삼룡, <금오신화의 비극성과 초월의 문제>, 《《한국고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3); 김명순, <금오신화의 비극성>, 《《신호열선생화갑기념논총》, 1983).
- 11) 신재홍, <동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신재홍, <초기한문소설의 전기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단학어문연구》 14집, 1989).
- 12) 김용덕, <남염부주지의 구성분석>,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1985).;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박명희, <만복사저포기연구> 《《이화어문논집》 3, 1980).; 엄기주, <유가의 소설적 대응 양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2).; 설성경,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8).;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 소설의 성립문제>, 《《고소설연구논총》, 이수봉선생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8).

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이러한 선형적 연구 목표의 설정으로 인해 이들 작품의 형상화 형식이 갖는 소설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금오신화》소재의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가 비슷한 무렵의 여러 명혼담 생산의 토대 속에서 작가 김시습을 매개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보고, 이들 작품을 두 남녀의 만남의 형식에 따라 편의상 “이생규장전 유형 명혼담”과 “만복사저포기 유형 명혼담”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¹³⁾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낭만적 전기 형식의 현실적 의미와 소설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였다.¹⁴⁾ 특히 그간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을 작가의 추상적인 철학사상의 표현으로 보는데서 오는 작품의 실상과 해석 사이의 괴리를 가능한 한 좁혀보기 위해서, 이들을 개별 작품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소설 발생기의 명혼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이야기에 나타나는 낭만적 구성 형식의 현실적 의미¹⁵⁾ 및 그들의 장르적 분화 양상, 그리고 그것에 투영

- 13) 일지기 이해순 교수는 《금오신화》중 “인귀교환” 모티프를 갖는 작품을 중국 소설과 비교하여 〈이생규장전〉을 이장무전계로 〈만복사저포기〉를 선유굴계로, 그리고 〈취유부벽정기〉를 선유굴계의 변형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해순, “금오신화에 나타난 인귀교환소설의 유형적 고찰” 《이승녕선생고회기념논총》, 1977).
- 14) 만일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등의 작품을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기일원론, 또는 일원론적 주기론 등의 성리학적 사상의 소설적 구현으로 본다면, 같은 구성형식을 보이는 여타의 명혼소설 및 설화들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 15) 박혜숙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오신화 5편은 모두 불우하거나 현실에 뜻을 얻지 못한 주인공이 비현실적 존재나 사건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달성하거나 혹은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 이념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거나 자취를 감추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지향과 구조적 특징에 유의한다면 금오신화의 사상적 성격은 단순히 문면에 적출되는 사상적 인명에만 의거하여 주기론이다, 주리론이다, 도교다, 불교다 하고 단선적으로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복합적인 사상적 인명 및 독특한 미학구조를 낳게 된 보다 포괄적인 정신구조로서의 김시습 사상의 역동적 총체성이 논의의 핵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앞으로의 금오신화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박혜숙, 〈금오신화의 사상적 성격〉,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되어 있는 세계관적 배경을 소설발생기의 사회적 토대 및 서술시각과 관련시켜 읽어냄으로써, 이들 명혼담의 현실적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이생규장전〉 유형 명혼담의 이야기 형식과 장르 분화 양상

1) 〈이생규장전〉 유형 명혼담의 형식과 이야기 함유층의 세계관

명혼담에서는 서사세계에 등장하는 두 남녀가 생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는가, 아니면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가에 따라 명혼모티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먼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현실세계의 질곡에 의해 결합을 성취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죽은 뒤, 죽은 사람이 환생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는 내용을 담은 작품들을 편의상 “이생규장전 유형 명혼담”이라 명명하고 그들의 이야기 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유형의 작품으로는 〈수삼석남〉, 〈이생규장전〉, 〈안생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들 명혼담에는 두 남녀의 결합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현실세계의 질서가 등장한다. 〈수삼석남〉에는 “첩”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부모들의 반대가, 〈이생규장전〉에는 “문벌의 차이”, “전쟁”이, 그리고 〈안생이야기〉에는 노비제도라는 “신분제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세적 질곡으로 인하여 남녀 주인공 중의 한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그려진다. 〈수삼석남〉에서는 두 사람이 결합을 하지 못하자 남주인공이 병이 들어 “폭사”를 하며, 〈이생규장전〉에서는 결합을 성취한 뒤 “전쟁”으로 인해 여주인공이 죽는다. 그리고 〈안생이야기〉에서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별을 하게 되자 여주인공이 자살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서는 표면상으로는 애정갈등을 그리고 있지만, 실상은 인간의 욕구를 가로막는 사회적 질곡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갈등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애정갈등은 낭만적인 명혼모티프를 통해 해소된다. 서사문학작품에서 서사세계의 이야기가 “갈등”과 그것의 “귀결”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들 작품에서는 명혼 모티프가 서사세계의 갈등의 해소

장치로 채택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들 중 〈수삼석남〉이나 〈이생규장전〉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생사를 달리하는 남녀의 만남이라는 낭만적인 전기적 모티프에 의해 해소되는 형식을 취하는 한편, 〈안생이야기〉에서는 죽었던 여주인공이 나타나는 형식을 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현실적인 낭만적 귀결과 앞에서 살펴본 바 현실적인 갈등 구조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삼석남〉, 〈이생규장전〉, 〈안생이야기〉의 구성을 좀더 세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를 느낀다. 〈수삼석남〉에서는 남주인공이 “폭사”한 뒤 살아나서 애정을 성취하는 한편, 〈안생이야기〉에서는 노비인 여주인공이 죽은 뒤 나타나지만 애정을 성취하지는 못한다. 반면, 〈이생규장전〉에서는 현실세계에서 애정을 성취한 여주인공이 “전쟁”이라는 새로운 질곡에 의해 죽음을 맞고, 다시 환생하여 애정을 성취한다. 이러한 이야기 구성상의 차이는 작품에 설정된 애정 성취의 장애 요인인 사회적 질곡 및 등장인물의 신분적 조건과 관련한 것이다.

예컨대, 〈안생이야기〉에 등장하는 조선전기의 노비제도는 중세체제의 골간으로서 중세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부정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질곡이 장애로 작용할 경우 그것이 극복되기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안생이야기〉의 경우 전기적인 모티프가 등장하더라도 결혼의 자유를 갖지 못한 노비와 양반의 사랑을 여노비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린 것이기에 소설의 결구가 낭만적인 명혼담 형태로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비의 꿈은 중세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기에 명혼담 형태의 낭만적인 꿈조차도 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삼석남〉의 경우는 현실세계에서 골품제라는 강력한 질곡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주인공의 욕구에 서술시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안생이야기〉에서와 달리 이 이야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남주인공이 “폭사”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한편, 여주인공이 〈안생이야기〉의 여주인공처럼 결혼의 자유를 완전하게 박탈당한 노비가 아니다. 이렇게 남성의 신분이 높고, 여성이 노비처럼 결혼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신분이 아닌 경우, 그들의 결합이 대등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모의 용인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신분제

가 질곡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이 가부장제적 틀 안에서 용해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낭만적인 명혼모티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이생규장전>에 설정된 “문벌의 차이”는 “신분제”처럼 중세적 질서 자체와 관련된 질곡은 아니다. 그것은 중세체제내의 정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야기된 사대부층 내부의 계층분화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생의 집안은 이생이 울주 농장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에 기반을 두고 유학을 업으로 삼는 선비계층이고, 최랑의 집안은 거가대족이라는 표현 및 최랑의 생활환경으로 보아 문벌 귀족에 속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력 및 권력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이생 집안도 상당한 사제층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의 결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낭만적 꿈은 당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서술자는 사회적 성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쟁”을 통해 이들의 낭만적인 형태의 결합이 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이별을 또 다시 낭만적인 명혼담을 통해 해소시킨다. 이러한 낭만적인 꿈의 부정과 또 다른 형태의 낭만적 꿈의 설정은 현실 세계의 질곡이 극복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자각하고 있는 작가의 비극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두 남녀의 사랑이 현실세계의 질곡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에서 성취되지 못하고 명혼모티프를 빌어 성취되거나,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 이야기에서는,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질곡의 현실적 성격에 따라 이야기 형식이 달라진다.

2) <이생규장전> 유형 명혼담의 서술시각과 장르 분화 현상

《대동운부군옥》에 전하는 <수삼석남>은 150자 남짓의 짤막한 설화이다. 이 이야기를 “현실세계에서의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과, “갈등의 해소에 해당하는 명혼담” 부분으로 나눌 때, “갈등” 부분은 20자 남짓에 불과하다. 예컨대, 이 부분은 “신라에 최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는 석남이었다. 애첩이 있었는데 부모가 이를 금하여 만나보지 못하니 자가 수개월이 되자 항이 폭사하였다.”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들의 애정관계를 간략한 사실 보고적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독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사이의 애정이 문벌이라는 신분질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 뿐이다.

반면 최항의 혼이 여인을 유인하여 자신의 주검으로 이끄는 과정 및 환생하는 과정은 이 이야기의 나머지 전체를 차지하며, 비교적 상세한 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독자는 최항과 여인이 전개하는 장면을 눈 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작품에서 최항의 가족들이 최항의 환생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독자들도 최항의 환생 장면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갈등의 전개” 부분과 달리 “갈등의 귀결” 부분인 환생 장면은 형상의 구체성을 얻어낸 것이다.¹⁶⁾

그러나 이러한 환생장면의 묘사만을 가지고서 독자가 이들 사건을 구성하는 인물의 성격 및 내면적 욕구, 그리고 그러한 욕구의 현실적 의미 등을 체험하기는 힘들다. 이들이 현실세계에서 전개되는 갈등상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에서 장면제현적인 묘사적 수법으로 그려진 환생 장면은 갈등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일 따름이다. 이야기에서 이처럼 갈등 과정을 약화시키면서 결과만을 부각시킬 때, 독자에게는 그 결과의 기이함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이는 서술자가 애초 이 이야기를 두 남녀의 비극적인 애정문제의 낭만적인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이야기 서술자는 이야기 향유층이 갖고 있는 현실적 갈등과 그것의 해소에 대한 낭만적 욕구 사이의 거리감을 명혼담을 통해 해소시켜줌으로써 향유층에게 낭만적 욕구 충족감과 함께 그에 대한 경이로움을 제공해준다. 이는 <수삼석남>이 현실세계에 전개되는 갈등과 그것의 극복을 염원하는 민중층의 낭만적인 꿈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야기 향유층이 아직 그 갈등의 현실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자각하

16) 이 부분만을 가지고 본다면 임형택 교수가 문식이 가해진 정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작품을 소설이라 규정한 것처럼 소설적 구체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장면의 구체성만을 가지고 이 작품을 소설이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형택, <나팔여초의 전기문학>, 《한국한문학연구》 5집, 1981).

여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을 서사적 형상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신라 말에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전기까지 연변되던 《수이전》의 일문으로서 〈수삼석남〉은 아직 소설적인 형태로 변개되지 못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수이전》의 일문으로서 소설적인 형태로 변개를 보인 〈최치원〉과 대조된다. 〈최치원〉에 설정된 주인공 최치원이 신라말의 소외된 지식인 계층으로서 〈이생규장전〉 등에 설정된 조선전기의 소외된 지식 계층과 유사한 계층적 범주에 들으로써 소설의 발생기인 조선 전기의 소설 향유층에 의해 소설적 주인공으로 변개된 반면¹⁷⁾, 〈수삼석남〉의 등장인물은 조선전기의 소설향유층인 비판적 지식인에게 계층적 동질감을 유발시키기 힘든 인물의 범주에 속함으로써 소설적 인물로 변개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안생이야기〉는 현실세계의 갈등 양상이 보다 선명하게 반영되면서도, 그 갈등이 평면적 사건의 형태로 서술됨으로써 기이한 사건에 대한 설화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실 세계와 치열한 갈등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설 장르에 근접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및 그에 따른 형상화 방법이 전기적 일화의 범주에 속함으로써, 설화와 소설 사이 장르적 변별성이 서술시각의 세계관적 기반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선명히 드러내준다.

〈안생이야기〉에는 〈수삼석남〉에 비해 갈등 부분에 해당하는 서사세계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진다.¹⁸⁾ 이 작품에는 노비제도라는

17) 필자는 《수이전》의 일문이 여러 문헌에 흩어져서 전해오는 전승 양상을 바탕으로 볼 때 《태평통제》에 전한다는 〈최치원〉은 《육조사적질사》에 전한다는 〈쌍너분〉과 같은 전기적 설화가 소설의 발생기인 조선시대 전기에 어떤 문인에 의해 소설적 형태로 변개된 것으로 생각한다.

18)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안생이라는 서울의 명문거족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성균관에 걸어두고 살진 말을 타고 장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당대의 돈 많고 아릿다운 정승의 계집종과 상사병을 병자하여 혼인한다. 이로 인해 계집종의 집안에서 극진히 대접받고 그 집안의 재산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자 다른 사위들이 정승에게 고해바치며, 정승이 계집종을 불러들여다 궁안에 가두어 둔다. 안생은 궁 옆에 작은 집을 얻은 뒤 계집종이 궁 밖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궁중의 종들과 문지기를 매수하여 그 집에서 애정을 나눈다. 정승이 이 소식을 듣고 계집종을 아내가 없는 하인

신분적 질곡이 안생과 여인 사이의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 관계를 보조해주는 요소로 노비 집안의 재산을 탐내는 다른 사위들의 모함도 등장한다. 이 부유한 외거노비와 주인 재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여 노비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게 된 안생과 나머지 사위들의 관계, 안생과 노비소유주인 재상 사이의 관계, 나아가서 양반의 신분이면서 미색과 재산을 소유한 노비의 집안에 장가를 든 안생과 노비 집안의 관계 등은 노비제도를 둘러싼 조선전기 사회의 모순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안생이 얻은 여인은 당시에 재상을 지낸 노비소유주의 외거노비이다. 그 아버지는 외거노비이면서도 부를 축적하여 요족하게 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신역만을 지불하면 외형상 양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를 축적한 외거노비의 경우, 경제적인 생활에서는 양인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노비소유권과 관련된 결혼 등 여타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데서 발생한다.¹⁹⁾ 이러한 주인과 노비 사이의 갈등은 중세체제가 지속되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안생과 여인 사이의 애정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조선전기의 노비제도 아래서 발생하는 현실적 질곡을 바탕으로 한 애정 관계를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

에게 시집보내려 하니 계집종이 자살을 한다. 안생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통곡하고 빈소를 지키니 꿈에 여인이 나타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인이 살아있는 듯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안생이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가서 죽었다. 성현, 《용재총화》 5권, 《국역대동야승》 1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1).

- 19) 이 작품에 나타나는 노비주와 노비 사이의 갈등은 노비제도를 배경으로 한 조선전기의 신분제도상의 질곡을 전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건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여러가지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조세수취제도의 간간이 되는 양천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노비변정사업을 벌여나갔다. 이는 공노비를 확보하고 압량위천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만듦으로써 조세 공물의 수취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노비변정사업은 외형상으로는 노비소유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노비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처리하는 형태를 지녔는데, 이는 그만큼 조선 건국 후 새로이 정착되어가는 노비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계층의 갈등 양상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면서도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전개되는 서사세계와 거리를 유지하여 냉정한 사실 보고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주인공이 신발과 옷을 두고 나누는 대화 장면, 그리고 여주인공이 나타나는 말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묘사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재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을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는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서술자는 남주인공인 안생을 “서울의 명문집의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학궁에 걸어두었으나 살진 말에 가벼운 복장으로 장안을 돌아다녔다”(有安生者 京華巨族也 雖名隸學宮 而乘肥衣輕 浪遊長安)라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안생이 여노비와 결혼을 하는 과정도 “당대의 정승의 계집종으로 돈이 많은 미인이 동성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예물로 빙계를 들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 안생이 병이 났으므로 중매하는 사람이 상사병이라 하여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혼인하였다.”고 서술한다. 안생이 진정한 애정에서가 아니라, 돈과 미색을 탐하여 신분을 돌보지 않고 남의 계집종을 취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안생의 여인에 대한 관계를 돈과 색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린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가 두 남녀의 관계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질곡이 문제적인 것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애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계집종의 기구한 운명만이 부각될 따름이다. 서술자는 그 여인이 자신의 신분에게 맞게 노비주의 명령에 따라 살았더라면 이러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서술한 것이다. 서술자에게 이러한 계집종의 비극은 운명적인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이들의 결합에 장애로 등장하는 노비주인의 존재를 추상적인 힘의 실체로서만 제시한다. 노비주는 성격을 갖춘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노비에게 소유권을 행사하는 개념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비주의 권리 행사 과정에는 하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노비제도를 극복되어야 할 질곡

으로 바라보지 않고 당연한 현실로 인식하는 서술자의 증세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계집종의 비극적인 삶은 노비제도라는 사회적 조건에서 배태된 것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가 그 사회적 조건을 둔채 삼지 않기 때문에 운명적 비극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에서는 낭만적인 명혼모티프가 등장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명혼설화나 명혼소설에서는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난 애정 관계는 낭만적인 전기적 모티프를 통해 해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작품에서도 여느 명혼소설에서처럼 죽은 여인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모습만을 보여주고 사라진다. 전기적 모티프가 현실세계에서의 갈등을 낭만적인 형태로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운명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직 노비제도의 질곡이 객관적으로 형상화되기 힘들 만큼 증세체제가 완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작품생산의 객관적 토대,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 토대를 바탕으로 증세적 세계관을 통해 현실세계의 사건을 전기적 설화의 차원에서 서술한 서술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서술자가 노비제도라는 증세적 질서의 질곡적 성격을 계집종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극복되기를 바랐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서사세계의 갈등이 소설적 구체성을 얻는 한편, <이생규장전>에서처럼 낭만적인 명혼모티프가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비제도가 부정됨으로써 그것의 질곡적 성격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서술자가 작품에 설정된 애정 성취의 장애요소를 극복되어야 할 질곡으로 인식함으로써, 명혼모티프가 현실적 질곡의 극복에 대한 염원의 해소장치로 되어, 작품내적 갈등이 소설적 구체성을 얻게된 경우를 <이생규장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생규장전>에는 남주인공이 “나이는 열여덟으로 풍채 좋고 재주도 훌륭했는데 날마다 국학에 다니며 글공부를 하는” 인물로, 그리고 여주인공은 “나이 열대여섯쯤 되는 처녀로 얼굴이 아름답고 자수와 바느질에 능하였으며, 글재주도 뛰어나 시부에 능한” 것으로 그려, 세칭 “풍류스런 이도령 요조숙녀 최낭자, 재색이 음식이라면 삼키고 싶을 정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생과 최랑은 이처럼 서로 짝하기 알맞은 재가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생의 부친이

내 역시 젊은 시절부터 손에 책을 놓지 않고 글공부만 하였으나 이렇게 늙은 몸이 되도록까지 아무런 성공도 못하였소이다. 게다가 노복들은 뿔뿔이 헤어져 가버리고 친척들의 도움도 받을 길이 없어 생활이 말이 아니고 집안살림이란 보잘것 없게 되었소이다. 지금 들전대 최랑택은 대단히 부귀한 가문이오라 어찌 나같은 일개 가난한 선비의 터전으로 서로 사돈잔을 맺자고 엄두를 내오리까²⁰⁾

하고 말하듯이 문벌상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집안의 아들딸이다.²¹⁾ 이생의 집안은 이생이 울주 농장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에 기반을 두고 유학을 업으로 삼는 사계층이고, 최랑의 집안은 거가대족이라는 표현 및 최랑의 생활환경으로 보아 문벌 귀족에 속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배경이 고려시대 개성으로 설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의 세계에 작가가 살고 있던 당대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작품의 배경에 영향을 끼친 《금오신화》의 창작 년대인 1400년대 후반만 하여도, 신흥사계층과 문벌 귀족의 집안이 혼인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흥사류층의 세력은 미미하였다.²²⁾ 그렇기 때문에 이생과 최랑이 부모의 반대를 받기는 하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20) 《금오신화》, 《(경인 고소설판각본전집) 1권,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 이생과 최랑 집안의 이같은 문벌상의 차이에 대하여 정병욱 교수와 임형택 교수는 “의식면에서나 현실적으로 대립되는 구귀족과 신흥사대부층”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정병욱,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8). ;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집, 1971).

22) 15세기 말기에 해당하는 성종년간에 김종직 등 향촌에 기반을 둔 신흥사류의 극히 일부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을 잡기 시작하였으나,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될 시발로 여러 차례의 탄압을 받아 진출이 좌절되다가 16세기 중반 이후에야 정권을 잡는다. 금오신화의 창작년대로 1460년대로 본다면 신흥사류층의 한 사람인 김시습의 생애가 그러하듯이 신흥사류층과 중앙문벌 귀족 집안의 혼인은 아직 낭만적인 꿈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병휴, 《조선전기 기호사립과 연구》, (일조각, 1984).

이었다.

이처럼 <이생규장전>의 서술자는 남녀 주인공을 서로 짝하기에 알맞은 인물로 설정하고, 그들이 서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애정에 입각하여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린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인공의 소망이 현실세계의 질곡에 의해 장애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에서는 <안생이야기>에서와 달리 등장인물들의 의지가 생동감 있는 형상성을 얻어내게 되는 동시에, 그들의 의지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요소 사이의 갈등이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제시된다. 그 결과 문벌의 차이라는 장애요소의 질곡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서사세계의 인물과 환경은 단순히 낭만적인 꿈의 매개항이나 기이한 호기심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서술자의 세계관과 충돌하거나 서술자의 세계관을 관철시키는 살아있는 실체들로 부각되게 되어 소설적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주인공들의 치열한 의지와 그것을 가로막는 환경 사이의 갈등이 생동감 있게 묘사적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서사세계가 소설적 긴장감을 얻어낸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이들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낭만적으로 해소시킨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낭만적 구성을 전쟁이라는 또 다른 재난을 통해 부정한다. 두 사람 사이에 생사라는 절대적인 장벽이 설정됨으로써 그들의 사랑이 현실세계에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임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다시 최랑의 환생 및 명혼 모티프의 설정을 통해 이러한 장애를 낭만적으로 해소한 뒤, 생사의 거리라는 운명적 질서를 통해 재차 부정한다. 현실세계에서 성취되기 힘든 것이지만 그것의 성취를 바라는 서술자의 낭만적인 꿈이 강력하게 투영되었다가 다시 부정된 것이다. 이처럼 이생규장전에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한미한 신흥사류와 문벌 귀족 사이의 넘어설 수 없는 신분적 차이를 두고 그것의 낭만적 해소와 부정이 거듭 되풀이되는 구성이 전개되면서 그 정점에 명혼모티프라는 낭만적인 전기적 모티프가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문벌의 차이라는 현실적 질곡을 극복하려는 서술자의 치열한 현실극복의식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 서술시각이 투영된 것이다.

서술자는 이생과 최랑의 신분 차이를, 〈안생이야기〉의 안생과 노비 사 이처럼 중세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극복되기 힘든 절대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중세체제 안에서도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이생처럼 현실세계에서 소외되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치열한 열망을 소지한 신진사류층의 낭만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3. 〈만복사저포기〉 유형 명혼담의 이야기 형식과 장르 분화 양상

1) 〈만복사저포기〉 유형 명혼담의 이야기 형식과 향유층의 세계관

현실세계에서는 서로 알지 못하던 생사를 달리하는 두 남녀가 서로 만나 애정관계를 맺는 이야기로 《보한집》 소재 〈이인보이야기〉²³⁾, 《용천담적기》 소재 〈채생 이야기〉, 《수이전》 일문으로 전해지는 〈최치원〉, 《금오신화》 소재 〈만복사저포기〉, 《기재기이》 소재 〈하생기우전〉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형 이야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남녀주인공이 현실세계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사세계에는 현실세계에 전개되는 갈등 양상이 만남의 정황 정도로 축약되거나 등장하지 않고, 서사세계의 대부분이 명혼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서사세계의 대부분이 전기적인 명혼모티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분석을 행하지 않으면 이들에 반영되어 있는 현실사회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예컨대, 《보한집》의 《이인보이야기》나 《용천담적기》의 《채생이야기》에서는 남주인공이 우연히 여귀를 만나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남주인공은 관계를 맺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여귀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은 뒤, 후에 자신이 여귀와 관계를 맺은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서는 상대방이 여귀인 줄 깨달은 뒤 남주인공이 이 사실을 피이하게 여긴다. 반면, 〈최치원〉,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에서는 남주인공이 상대방이 여귀인 줄 알고 관계를

23)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p. 113~115에서 이 작품을 전설의 장르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다룬 바 있다.

맺는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에서는 자신들이 여귀와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를 절실한 것으로 여긴다.

이처럼 이들 작품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갈등이 생략됨으로써, 서사세계의 이야기는 “어떤 남성이 여귀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건적 사실로 축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아서는 <이생규장전> 유형의 이야기와 달리 여기서 이러한 명혼 모티프는 “갈등의 귀결”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건의 형태로서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인보이야기>와 <채생이야기>, <최치원>과 <만복사저포기> 그리고 <하생기우전>들의 이야기 형식에서 이 명혼모티프의 기능과 의미가 각기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인보이야기>와 <채생이야기>에서는 이들의 만남이 말 그대로 우연한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만복사저포기>나 <최치원>에서는 남주인공의 소망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려지는 한편, <하생기우전>에는 남주인공의 운명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만남의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그들의 이야기 형식도 편차를 갖게 된다. <이인보이야기>나 <채생이야기>에는 명혼모티프가 기이한 일회적 사건으로만 등장한다. 그러나 <최치원>이나 <이생규장전>에서는 그들의 만남이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확장되어 그 자체로서의 서사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명혼모티프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설정됨으로써 명혼모티프가 이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하생기우전>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명혼모티프 이전과 이후의 서사적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됨으로써, 이야기가 등장인물의 일대기 형태로 확장된다.

이러한 이야기 형식의 차이는 유명을 달리하는 남녀간의 만남이라는 명혼모티프를 서술자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인보이야기>와 <채생이야기>에서는 서술자가 명혼모티프를 서술자의 의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이한 사건으로 서술하려는 시각을 견지한다. 이때 서술자가 서사세계의 사건을 기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서사세계의 사건에 반영된 현실세계의 갈등적, 성격적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는 이야기 향유층이 서사세계에 전개되는 사건을 자신의 좁은 세계관적 틀에서만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서술자가 서사세계에서 주인공의 소외를 야기시키는 현실적 질서를 질곡으로 인식할 경우, 명혼모티프는 그러한 당연한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낭만적 계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치원>, <만복사저포기>에서처럼 그것은 갈등의 현실적 의미를 구체화해주고 현실세계에서 달성하지 못한 내면화된 욕구를 환상적인 형태로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이 경우 <하생기우전>에서처럼 명혼모티프는 현실세계에서 소외된 주인공의 삶을 타개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서사세계의 이야기 형식을 후대의 낭만적인 일대기 소설의 구성에 근접하는 형태로 만들기도 한다.

2) <만복사저포기> 유형 명혼담의 서술시각과 장르 분화 양상

이러한 이야기 형식을 갖는 이들 이야기는 개별 작품에 나타나는 서술시각의 차이에 따라 개별 작품 사이의, 또는 장르 사이의 형상화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러한 서술시각과 형상화 형태의 관련 양상 및 장르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채생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에서는 남주인공에 대해 서술자가 “근래 채씨란 성을 가진 한 학생이 훈련원 가까이 살고 있었다”(近有一學生姓蔡者 居近訓練院)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처지 및 그에 입각한 성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만남을

저만큼 떨어져 한 부인이 길에 서있거늘 서로 한동안 바라보다가 채생이 천천히 다가가 보니 소복에 비녀를 나죽이 꽂았는데 얼굴은 밝고 요염한 것이 사람에게 비쳐왔었다. 생이 정신이 황홀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짓을 던지시 해보고…좋은 밤 한가로운 풍경에 귀한 분을 이렇게 만나니 솟아나는 정을 스스로

24) 두려움이나 경이로움, 기이함, 괴이함 등은 인간이 자신의 일상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적 현상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자신의 세계 인식의 틀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괴이함 또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없어 순간적으로 미친짓을 저질렀소마는 진나라의 한수가 향을 훔친 일이 무어 그리 죄되리오.²⁵⁾

이렇게 충동적인 미혹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그린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성격 및 현실적 처지에 입각하여 이야기의 핵심 사건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사세계에 전개되는 채생의 현실세계에서의 삶과 채생이 겪은 사건은 내적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사세계에 전개되는 전기적 사건의 공간과 현실세계의 공간이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서사세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결말이 맺어진다.

홍은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머리를 때리는 듯 요란하여 놀라 눈을 뜨니 자기가 돌다리 아래 누워서 흙투성이 돌을 베개하고 헤어진 설피를 덮었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앞을 가린다. 벼은 초립과 각대는 다리기둥 틈에 걸려있고 아침해가 이미 솟았는데...²⁶⁾

현실세계의 공간과 주인공이 체험한 공간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단절은 채생이 “고개를 빼어 후시나 한번 더 만나볼 수 있을까 하여 초조하였으나 곧 요귀한테 홀린 줄 알고 무당이 굿을 하고 의사가 뜸도 뜨는 등 약물과 기도를 백방으로 하여 겨우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세계 사이에 대해 느끼는 주인공의 거리감으로 인하여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이러한 인물의 성격 결여, 만남의 우연성, 현실공간과 전기적 공간의 단절성 등은 명혼 모티프를 빌어 전개되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서술시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서 서술자는 퇴재란 사람의 입을 빌어 채생의 체험을

요귀는 사람을 묘하게 홀리느니라. 추악하고 요괴로움을 꾸며 미모로 나타나고 간악하고 위장된 일을 오히려 미담으로 바꾸며 악취를 향기롭게 하고 더러운 흙투성이를 훌륭한 궁실로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눈을 어지럽혀 갖은 수법으로 현혹시켜 꾀이니 그릇이 크고 강직한 기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누가 유혹되지 않겠는가...천하에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민심을 문란케 하

25) 김안노, 《용원담적기》, 《(국역대동야승) 3권》, p. 482.

26) 같은 책, p. 484.

는데 그 귀신보다 더한 일이 많은 것이니 생이 그렇게 당한 정도는 이미 수없이 많았으리라.²⁷⁾

이렇게 ‘추악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일들 중의 하나’로 이해한다. 서사세계에 설정된 사건을 여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당대의 현실적 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문면상으로 보면 이러한 서술자의 말은 서사세계에 표현된 바 귀녀와 채생의 관계라는 전기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전기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의례를 밟지 않은 남녀 관계 일반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술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 세계관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육의 발동에 의해 만난 두 남녀의 관계를 “여귀에 의한 남성의 혼림”으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해서는 만남에 대한 욕구의 결실함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친한 제집의 운명이 기구하여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라서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유모에 의탁하여 살아오면서 규방의 법도에 익숙치 못합니다. 대양고요한 밤을 타서 풍경을 완상하며 긴 한숨 속에 지나다 동무를 따라 놀이 가자고 길거리에 나섰는데...²⁸⁾

이렇게 여주인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여 살다가 결혼을 하지 못한 채(죽은 뒤), 긴 한숨속에 지나다 채생을 만나 욕구를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는 왜 이렇게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여인의 욕구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일까. 그리고 채생과 여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적으로 치밀하게 그리는 것일까.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 서사세계의 사건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편심을 문란하게 하는 여러 일들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서술자의 서사세계의 사건에 대한 이해의 심도 및 태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27) 같은 책, p. 484.

28) 같은 책, p. 483.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한집》의 〈이인보설화〉²⁹⁾의 경우와 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인보설화〉에서 서술자는 서사세계의 사건을 기이한 것으로 파악하여 사실보고적인 시각으로 제시한다. 서술자가 서사세계를 기이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서술자의 세계이해의 틀로는 서사세계의 사건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술자는 이인보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인의 욕구를 현실적인 문맥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서술자는 서사세계의 인물 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사실보고적인 서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채생이야기〉에서 서술자는 여인의 행위를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인 행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술자가 이처럼 서사세계의 사건이 갖는 사회적 성격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건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서사세계의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이러한 이해의 심도가 이 작품에서 여인의 욕구 및 처지의 구체적인 설정, 여인과 채생이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는 시종의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부분적인 상황설정의 묘사적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서사세계에 치열한 갈등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이인보설화〉의 경우보다는 서술자의 현실이해의 깊이가 깊어졌지만, 이 작품의 서술자 역시 좁은 중세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서사세계의 사건을 재단함으로써, 인간적 애정 성취 욕구와 그것을 가로막는 중세적 질서 사이의 치열한 갈등 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술자가 완강한 중세적 세계 질서의 틀을 넘어서기 힘든 시기에 중세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서사세계의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서사세계의 갈등이 경이의 대상으로만 서술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이인보설화〉라면, 중세적 질서의 모순이 더욱 노정되어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는 시기에 서술자가 서사세계에 전개되는 사건의 반중세적 성격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비판적 시각에서 형상화한 설화가 〈채생이야기〉라 할 수 있다.

29)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6). 참조.

한편, 생사를 달리하는 남녀 사이의 애정을 통하여 내면화된 현실세계의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적 작품으로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하생기우전〉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최치원〉과 〈만복사저포기〉는 서사세계의 갈등이 명혼모티프에 집중됨으로써 내면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하생기우전〉에서는 현실세계의 갈등 부분이 확대되면서 갈등의 내면화 양상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치원〉이나 〈만복사저포기〉의 남주인공은 현실세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외로운 존재들이다. 최치원은 “동쪽 바다 건너 미미한 서생이며, 속세의 미관말직”으로 청운의 꿈을 품고 당나라에 유학을 갔으나 궁벽한 시골의 미미한 벼슬아치가 되어 “외로운 여관”에서 객수를 느끼는 처지이다. 그리고 양생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장가를 들지 못한 채 만복사 동쪽 방에서 외로이 지내는” 처지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이처럼 남주인공의 처지를 지극히 “외로운” 상황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상황은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이생의 처지와는 다른 것이다. 이생은 현실세계에서는 소외되어 있지만, 태학관에 다니면서 그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인물이다. 그러나 양생은 그와 같은 꿈조차 꾸어볼 수 없는 미천한 처지이며, 최치원은 이역 만리에 나가서까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인물이다. 이들은 현실세계에서 애정을 성취해 나가는 이생과는 달리, 그러한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소외의식을 가슴속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여주인공은 모두 현실세계의 질곡으로 인하여 꽃다운 나이에 죽은 여인들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은 왜적에게 죽음을 당하여 한스러움을 안고 삼년 동안을 지내온 원혼이며, 〈최치원〉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부유한 소금장사와 차장사에게 시집보내려는 것을 불만스러이 여기다가 요사한 원혼들이다. 외로움이 극에 달한 원귀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남주인공들의 외로움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다.

등장인물들이 갖는 이러한 처절한 소외의식은 이들 남녀의 만남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계기”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 〈이인보 이야기〉, 〈채생 이야기〉에 설정된 만남의 “우연적 상황”과 질적인 차이

를 보이는 것이다. 명혼이라는 동일한 형태의 만남이지만, 우연적 계기에 의한 만남은 그것의 내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기에 명혼이라는 만남의 형식이 “괴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이들 작품에서와 같은 만남에 대한 절실한 욕구는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명혼이라는 만남의 형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들 작품에서는 이러한 외로움이 절절한 시를 통해 표현된다.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시 속에 화자 자신의 외로움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최치원>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죽어 외롭게 묻혀있는 쌍녀분의 주인들에게 투사되어 표현된다. 그리고 이후 서사세계에 전개되는 사건은 이들 시를 통해 절실하게 표현된 남주인공의 외로움에 응하여 발생하는 것들이다.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이 시에 응하여 “네가 좋은 배필을 원한다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이 공중에서 들리며, <최치원>에서는 위로 받은 무덤 주인으로부터 전갈을 받은 뒤, 여성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은 현실세계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던 사이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지워진 극단적인 소외의식과 외로움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이들 작품에서는 현실세계의 질곡이 등장인물들의 애정 장애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만남을 필연적인 것으로 결정지워주는 계기적 요소로 등장한다. 그 결과 서사세계에는 현실세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서사적 갈등이 등장하지 않고, 이들의 내면화된 소외의식³⁰⁾을 드러내어 해소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내면화된 소외의식을 드러내어 해소하는데 가장 유용한 양식은 서정시라 할 수 있다. 서정시는 객관세계의 질서를 넘어서 세계에서 느끼는 개인의 내면의식을 주정적으로 표출하는 양식이다. 이들 유형의 작품에서는 서사 장르이면서도 현실세계의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이 창출되지 않은 단계의 서술자의 내면화된 소외의식을 명혼 모티프라

30) 신재홍은 몽유록에 나타나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갈등의 내면화”란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신재홍,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는 낭만적인 전기형식 및 삽입시라는 서정장르를 빌어 표현한 것이다. 이들 유형의 명혼소설에서 삽입시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복사저포기〉나 〈쌍녀분〉에서는 〈이생규장전〉에서보다 삽입시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생규장전〉에도 삽입시가 상당수 등장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생과 최랑이 만나서 서로의 재주와 마음을 알아보는 장면과 최랑의 방에 놓여 있는 병풍에 씌어진 시가 거의 전부이다. 〈이생규장전〉에서는 이들 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읽은 뒤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관철해 나가는 서사적 이야기가 책을 이루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 이들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반면, 〈만복사저포기〉 및 〈최치원〉에서는 남녀주인공이 만나서 서로의 의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내용이 서사세계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삽입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이들 작품에서는 작품의 구성에서 삽입시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최치원〉이나 〈만복사저포기〉에서 서술자는 서사세계에 전개되는 사건의 추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세계의 상황 및 현실세계에서의 내면화된 소의의식의 표현에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작품은 일견 시적 정황이 서사적인 형태로 구체화된 시화적 성격을 지닌다.

한편, 〈하생기우전〉에는 남주인공이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집안을 노비들에게 맡긴 뒤 마을 태수의 추천으로 고향을 떠나 태학에 다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만복사저포기〉나 〈최치원〉의 주인공이 만복사 동쪽 방에 외로이 있는 총각, 또는 만리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는 최치원 등처럼 소의되어 있는 정황만이 설정되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소의된 지식인으로서의 주인공의 처지 형성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세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만복사저포기〉나 〈최치원〉에서처럼 서정적인 시적 표현 형태로 드러나지 않고, 절장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행위로 나타남으로써 서사성을 보다 탄탄하게 확보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뒤, 남주인공이 사랑의 신표로 주고받은 금척으로 인하여 여주인공의 부친으로부터 당

하는 수난, 여인이 환생한 뒤 여인과 하생이 결혼하기까지의 수난 등 갈등에 기반하여 사건이 전개됨으로써 보다 탄탄한 서사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기에 〈하생기우전〉에서는 명혼모티프의 의미가 축소되고 환생이후에 전개되는 갈등과 수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여 욕망을 성취하는 낭만적인 구성이 보다 큰 의미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복사저포기〉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서술자가 명혼모티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설화”와 “소설”의 장르 분화가 이루어진다. 설화에서는 명혼모티프를 기이한 것, 또는 현실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괴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건 보고적 시각에서 서술하는 반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내면화된 소외의식을 낭만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하여, 그것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내면화된 욕구를 해소하고 소외의식을 마음대로 토로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배경사상과 소설사적 경향성 논의

이상으로 우리는 명혼담의 낭만적 구성과 그것들의 장르분화 양상이 나타내는 현실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핵심적인 명혼소설 작품인 〈만복사저포기〉 및 〈이생규장전〉을 포함한 《금오신화》의 작가 김시습의 작가의식 문제를 작품으로부터 접근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간 김시습 및 《금오신화》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는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이 갖는 역사적 성격, 금오신화의 소설사적 경향성 문제, 그리고 금오신화의 배경사상으로서 김시습의 사상이 갖는 철학적 성격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김시습의 사상이 반중세적인가³¹⁾, 아니면 중세체제내의 비판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인

31) 조동일 교수는 김시습을 “왕도정치의 실현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대부층과 달리 “민중적 입장과 관련을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이단적 불평지식인으로서 중세적 질서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로 파악하여 김시습의 사상을 반중세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동일, 앞의 책.

가”³²⁾의 문제, “금오신화를 현실주의적 작품, 또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금오신화의 배경 사상이 기일원론 또는 일원론적 주기론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³³⁾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간에 쟁점적으로 제기된 이들 문제 중에서 김시습의 사상이 “기일원론, 또는 일원론적 주기론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는 논의의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김시습의 명혼소설 분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김시습의 명혼소설의 분석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추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작가의 생애나 사상을 근거로 작품을 해석해오던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작품의 형상화 방식 속에 투영된 작가의 세계관적 특징을 보다 정밀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 32) 일찌기 정병욱 교수는 김시습의 삶을 15세기 중후반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관련시켜, “당대의 집권층인 훈구파에 저항한 신흥 사류층의 동반자적 전위분자”로 규정하였다. 즉, “한미한 무가계 집안의 자손으로서” “벼슬 할 길이 자유롭게 트이지 못한 객관적 조건 때문에 방랑산수하고, ” “신구 관료군의 대립 항쟁의 도가니 속에서 그의 생애를 다친 전환기의 제물”로 파악함으로써 김시습의 계층적 성격을 역사적 조건과 관련시켜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임형택 교수는 김시습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생애와 사상이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후에 이러한 견해가 아마추어적인 것이라고 반성하면서, 김시습이 “중세기적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저항적인 자세를 취한” “방외인적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였다.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을 중세체제 내적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한편, 정병욱 교수의 해석과는 달리 김시습의 사상 및 생애를 저항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 33) 임형택 교수의 조동일 교수가 금오신화를 “기일원론” 또는 “일원론적주기론”의 사상적 표현물로서 “사실주의” 또는 “현실주의” 작품으로 파악한 데 대해서 김명호 교수는 이의를 제기하고, 김시습의 사상은 아직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분화되기 이전 단계의 성리론으로서, 당대 유행하던 불교 사상을 부정하고 성리학적 이념을 내세우기 위해 《금오신화》를 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일철 교수는 김시습이 존재론에 있어서는 주기론적 경향을 보이면서, 윤리론에 있어서는 주리론적 경향을 드러내어 《금오신화》의 저 작품에서 주리론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4) 이상택 교수는 이 문제를 이들과는 달리 “초월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문학작품의 내용에 기초하여 김시습의 사상을 해석하였으며, 박혜숙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전기양식에 해당하는 《금오신화》가 가지는 낭만성과 초월성, 또는 일종의 허무주의가 김시습 사유구조의 어떤 측면과 어떻게 매개되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여 김시습 사상의 저항적 성격, 또는 진보

1) 명혼소설에 투영된 김시습의 삶의 역사적 성격

먼저 김시습의 생애 및 사상이 갖는 역사적 성격 문제를 앞에서 행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의 분석 내용과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³⁵⁾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에 반영된 현실세계의 갈등은 “한미한 사류층과 당대의 거가대족 사이의 신분적 차이”, “현실세계에서 소외되어 외로운 처지에 있는 지식인의 내면화된 소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안생이야기>에서처럼 중세체제의 핵심적 질곡인 신분제도를 문제삼는 반중세적인 것도 아니며, <이인보이야기>나 <채생이야기>에서처럼 특권적 관료층, 또는 양반층과의 결합을 바라는 타계층 여인의 소망을 “괴이한 것”, 또는 “당대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집권 사대부층의 완강한 계층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15세기 후반 사림파들이 집권층으로 부상하기 직전, 소외된 사류층의 현실세계에 대한 소외의식 및 현실 극복 의식이 투영된 중세

적 성격만을 부각시키려는 일련의 경향에 대하여 반성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 35) 박혜숙 교수는 이에 대해 “김시습의 사상이 봉건적 제 모순에 저항했다는 논리나, 봉건적 이념이 관철되지 아니하는 당대의 현실에 저항했을 따름이라는 논리는 모두 그 나름의 일면적 타당성을 가지긴 하나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보다 설득력있고 깊이있는 연구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이 “반중세적인 것인가, 아니면 중세체제 내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그것을 “저항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계층적 토대와 정치 현실 사이에서 배태된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즉, 김시습의 삶을 한미한 계층적 기반을 갖는 신흥 사대부의 전위분자로서 당대의 정치적 현실의 제물로 파악하는 정병욱 교수의 시각처럼 김시습의 생애와 삶을 당대의 객관적 조건과 관련시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조동일, 임형택 교수의 해석처럼 김시습의 생애가 보여주는 현실비판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후대의 집권층으로 부상하는 사림파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와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이 임형택, 정병욱 교수의 견해처럼 중세체제 내적인 것인가, 아니면 조동일 교수의 그것처럼 반중세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체제내적 갈등 양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세모순적 처지” 등, 그간의 김시습의 생애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한 김시습의 처지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작가가 속한 계층의 현실적 갈등과 세계관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향촌 사회에 자급적인 물질 기반을 향유하면서도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집권층으로 부상한 사림파와 물질 기반을 달리하는 김시습의 처지 및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소위 “방외인적” 삶의 형태라는 김시습의 삶의 형태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간의 연구사에서는 김시습의 삶을 “색은행괴”, “전환기의 제물”,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둔세”, “굴종하거나 체념하지 않은 저항적인 삶” 등으로 이야기해 왔다. 김시습의 세계관과 계층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임형택 교수는 《용천담적기》의 “자기의 종과 전택을 남이 빼앗아 가는 데도 버려두고 조금도 개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돌려주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불응하는지라 설잠 차신이 곧 송사를 하여 상대하여 싸우면서...”와 같은 기록을 들어 김시습이 지방의 지주인 처사들과 물질 기반이 같으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³⁶⁾ 그리고 당시 정권 담당층과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여 농민층을 옹호한 지식인의 고독한 거부 행위로서 방외인적인 삶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³⁷⁾

그러나 과연 김시습이 스스로 자신이 소지한 지주적인 물질 기반을 버리고 중세적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방외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병욱 교수가 “청빈수지하고 방랑산수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앞서 지적한 그의 객관적인 조건, 즉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자유롭게 트

36) 임형택, <매월당의 방외인적 성격과 사상>,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p. 67.

37) 여기서 임형택 교수가 김시습의 삶을 “방외인”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의 삶을 객관적 토대와 관련지워 밝히려는 시각보다는 “저항적 이념”에 의해 의지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을 노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임형택, <매월당의 방외인적 성격과 사상>,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이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겠다³⁸⁾고 한 바에서 볼 수 있듯이, 김시습의 계층적 기반이 지주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었는지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에 설정된 인물들을 볼 때 〈이생규장전〉의 주인공이 한미하지만 지주 계층이라면,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은 신분적으로는 양반이지만 양반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 보아서 이 두 인물의 계층적 성격은 상당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에 만일 임형택 교수의 주장처럼 김시습의 삶을 자기가 소지한 경제적 기반을 버리고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방외인적인 삶을 택한 것으로 본다면, 〈이생규장전〉의 주인공은 경제적 기반을 버리기 전의 김시습의 처지를, 그리고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은 버린 후의 처지와 대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아직 사람파가 세력을 구축하기 이전에 토지의 집중과 농장의 확대 과정에서 점차 소외되어가는 한미한 사류층의 물질 토대의 변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시습의 가문이 한미한 무반으로서 《용천담적기》의 기록에서처럼 약간의 노비와 전장을 가졌지만, 그것을 상실한 뒤 개간을 하거나 농토를 빌려서 경작하였다는 기록들은 이러한 물질 토대의 상실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러한 몰락 과정에는 현실세계의 질서에 불만을 품고 방달한 생활 태도를 보인 김시습 개인의 삶의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생애 전반을 개관해 볼 때 김시습은 학문적인 기반은 갖추었으면서도 정치, 경제적 기반은 취약한 계층으로서, 15세기 후반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나마의 기반마저도 상실당한 몰락 사류층의 범주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생규장전〉의 주인공이나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은 현실적 처지가 다르게 보이면서도 몰락과정이 반영된 동일한 계층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경제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몰락하기 전의 김시습과 대응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산사를 떠돌며 외롭게 지내던 김시습의 모습과 대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생규장전〉

38) 경 병욱, 앞의 책, p. 41.

과 〈만복사저포기에〉 투영된 김시습의 작가상은 조선 전기 사림층이 중앙 정계에 부상하기 전 “사림층의 동반자”로서 당대의 현실·질서의 극복을 낭만적으로 꿈꾸면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소외된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명혼소설 구성의 소설사적 경향성

《금오신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또 한가지 살펴볼 문제는 이들 작품에 대한 소설사적 경향성 규정 문제이다. 그간 《금오신화》의 소설사적 경향성에 관한 논의 역시 임형택 교수의 “현실주의적 사상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규정, 그리고 조동일 교수의 “사실주의 소설”이라는 규정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³⁹⁾

예컨대, 임형택 교수는 “현실주의”라는 개념을 “도가의 현실도피적 은둔사상, 불가의 현실부정적인 인생자세, 제 미신적 세계관 등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면서 “현실을 긍정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기일원론적 철학사상”, “민본애민사상”을 들고, 이러한 현실주의적 사상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외적인 시사가 괴리되는 데서 인생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주의적 사상이 〈남연부주지〉에는 직접 표현되고 있으며,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는 “인생의 비애”를 통한 “인간성의 긍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⁴⁰⁾

여기서 “현실주의”라는 개념은 ‘김시습이 유가적 세계관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색은행괴”라는 평을 들었지만 단순히 현실도피적인 세계관을 소지한 것이 아니며, 《금오신화》의 작품들은 환상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환상성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39) 한편 신재홍은 이들 작품을 “환상장르”로 파악하여 “너뭇거림”이라는 미학적 특성과 “감정적 차원의 의식과 이념적 윤리적 차원의 의식 사이의 긴장”이라는 미학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40)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국문학연구》 13, 1972).; 임형택, 《매월당의 방외인적 성격과 사상》,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임형택, 〈매월당 문학의 성격〉, 《대동문화연구》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위해 설정된 것이다. 김시습의 사상을 현실도피적인 불가나 도가 사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란 실현 가능한 미래적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세계에 대응해 나가는 세계관적 태도를 지칭한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현실세계의 사회구조와 역사적 변화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학적 형상화 방식 및 그러한 방식을 구현하는 사조를 지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는 바 세계관으로서의 “현실주의”란 개념에는 현실세계에서의 객관적 실현 가능성으로서의 미래적 전망 및 그에 따른 삶의 행태에 대한 고려 없이, 다만 사상의 현실연관 여부만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리고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현실주의” 개념에서는 형상화 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스스로가 설정한 “현실주의적”이라는 작가의 사상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만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현실주의적” 사상으로 “기일원론적 철학사상”, “민본애민사상” 등을 들고 있지만, 그것들이 “현실도피적인 도가나 불가 사상”과는 다른 여타의 다양한 세계관과 어떠한 변별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의 현실세계에서의 실현 가능성 및 그 실현을 위해 김시습이 보인 삶의 행태가 당대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금오신화》의 핵심적인 형상화 방식인 전기적 형식의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김시습의 생을 “현실도피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환상적인 전기 형식을 환상 그 자체로서만 이해하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원의 “현실주의”라는 개념 설정이 일정한 연구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문학 형식의 의미를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려는 반영론적 시각에서의 문학 연구가 심화되고 있으며,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방법론을 연관시켜 문학 형식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소설사적 흐름의 구도를 조망해 가려는 현금의 연구 수준에서는 이러한 차원의 개념 사용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동일 교수는 《금오신화》를 일원론적 주기론을 바탕으로 한 반증세적인 이단적 사상의 산물로 파악하여 “사실주의 소설”이라 규정하고, 그것은 “역사적 사회적 시공에서 전개되는 있는 그대로의 대결을 대

결의 최종적인 실체로 보아 이것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드러낸 현상 자체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⁴¹⁾ 금오신화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 “현실주의”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문학 작품의 지향성 및 형상화 방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설사적 경향성 해명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소설사의 흐름에서 그 성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후대의 “영웅소설”류와 김시습의 소설 사이의 차이를 짚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차원의 변별성 구명은 소설사의 흐름 및 소설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보다 섬세한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금오신화》를 “역사적 사회적 시공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대로의 대결을 최종적인 실체로 보아 이것을 생생하게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사실주의”로 규정한 것은 “일원론적 주기론에 입각한 《금오신화》”와 후대의 “이원론적 주기론에 입각한 영웅소설”을 대타적인 병립적 관계에서 파악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 변별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데서 나온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오신화》는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전기적인 소설이다. 전기소설이란 “역사적 사회적 시공에서 전개되는 대결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낭만적인 전기적 모티프에 의해 해소되는 소설 형식을 뜻한다. 이러한 낭만적인 구성방식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전기소설”이라는 양식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사실주의의 한계”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주의”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양식상의 본질적 경향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종래 김시습의 사상을 일원론적 주기론, 또는 기일원론으로 파악한 뒤, 금오신화를 그러한 철학 사상의 표현으로 파악하여⁴²⁾,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구성을 갖는 《금오신화》의 작품들을

4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6.

42) 이 논문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금오신화》와 김시습의 철학사상을 관련시키는 기존의 논의 방식에 대해 필자는 약간 생각을 달리한다. 《금오신화》의 배경 사상으로서 기존의 철학 사상 논의에서는 기일원론, 일원론적 주기론, 그리고 주기론적 존재론과 주리론적 윤리론, 주리 주기론이 분화되기 이전 단계의 성리학적 이념 등 사상의 실체에 대한 전해가 엇갈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더우기 그간 김시습의 사상적 경향에 대하여는 불가, 도가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김시습의 사상을 추상적

“현실주의” 또는 “사실주의”라고 해석한 그간의 연구 경향에 대해 이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성격을 작품에 형상화된 내용과 형식에 근거를 두어 추출하기보다는 선형적으로 규정한 작가의 사상을 근거로 작품을 재단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기적 구성을 갖는 명혼소설의 형상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명혼소설은 명혼설화와 달리 등장인물의 의지를 통해 그들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현실세계의 질서를 문제삼는다. 이는 명혼소설의 서술시각이 당대의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질곡적인 세계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치열하게 드러내는 소설 향유층의 비판적 세계관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명혼소설에는 이러한 현실극복 의지가 현실적인 방법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전기적 방식에 의해 해소되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역시 현실극복의 전망과 힘을 획득해 내지 못하고, 그것을 낭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소설 향유층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⁴³⁾

인성론의 국면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과연 이렇듯 극히 추상적인 범주의 존재론적 철학 사상의 범주와 《금오신화》에 투영된 김시습의 총체적인 사상의 총위가 과연 일대일 대응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태극설, 생사론, 귀신론 등에 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존재 범칙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체계는 인간의 사회적 삶 문제와 관련된, 역사, 사회, 윤리 등에 대한 사상체계로 구체화될 때에야 비로소 작품의 세계관적 기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생사설 등의 일부 글에 표출된 김시습의 형이상학적 견해나 《금오신화》는 각기 상이한 총위의 세계 인식 태도를 반영하여 상이한 형태로 구체화된 각기 다른 텍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설 등에 표현된 김시습의 형이상학적 견해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기저적인 세계관으로서가 아니라, 《금오신화》 및 여타의 글들과 더불어 김시습의 세계에 대한 태도 전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상호 연관적인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 43) 필자는 명혼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지 않고, 기존의 시각을 수용하는 한편 명혼소설의 갈등적 성격에만 주목하고 그것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들 작품을 현실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한 바 있으나, 이제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수행하여 그러한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박일용, <조선 후기 애경소설의 서술시각과 서사세계>,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9).

그간 김시습의 사상을 진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의 삶을 저항적인 것으로만 강조해온 시각에서는 김시습의 명혼소설을 이처럼 낭만적 세계관이 투영된 작품으로 파악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낭만적”이라는 개념이 김시습 사상이 갖는 진보성 및 저항적 성격을 감소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저항정신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중세체제내에서의 지식인의 비판정신이란 현실적 대안을 창출해낼 수 없는 낭만적인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그러기에 김시습은 현실세계에 대해 치열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신세모순”의 처지에 임하여 현실극복의 전망을 창출하지 못하고 현실세계를 버린 것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질탕하여 명예와 영리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생업을 돌보지 않았다. 오직 정빈으로 뜻을 지키고 산수간을 거닐면서 시나 읊을 것을 염원하였다... 하루는 문득 감개한 사변을 당하여,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행할 수 있는데 몸을 깨끗이 하여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를 행하지 못할 때에는 한 몸이나 깨끗이 하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외에 의탁하여 도남과 사막의 유품을 본받고 싶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승속이 없었다. 그리하여 결정치 못하고 있다가 하루 저녁에 홀연히 깨달아 중의 옷을 입고 산사람의 노릇을 한다면 자기 바람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⁴⁴⁾

김시습의 현실 대응 태도는 이처럼 왜곡된 현실적 질서 속에서 한 몸이나 깨끗이 하는 증세적 현실비판적 자세의 대안으로 채택된 가승려로의 처지바꿈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바꿈으로 인하여 김시습의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의식이 사라진 것도, 그리고 현실세계의 질곡이 극복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증세적 질서 안에서 비판적 지식인이 취할 수 있는 낭만적 저항 방식인 것이다. 명혼소설의 형상화 방식은 이러한 소외된 지식인의 비판의식과 낭만적 저항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것이다.

44) 余自少跌宕不喜名利不顧生業惟以清貧守志爲懷素欲放浪山水遇景吟詠...一日忽遇感慨之事以謂男兒生斯世道可行則潔身難倫恥也如不可行獨善其身可也欲泛泛於物外仰慕圖南思邈之風而國俗無此事猶豫未決一夕忽悟若染緇爲山人則可以塞願, 《매월당집》 하권, 계명문화사, p. 413.

5. 결론—명혼소설의 소설사적 의미

이상으로 소설 발생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명혼담들을 계열화하여 형상화 방식과 서술시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장르분화 양상과 그것의 현실적 의미를 살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오신화》 연구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김시습 사상의 역사적 성격 및 명혼소설의 소설사적 경향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명혼담은 만남의 형식에 따라 “이생규장전 유형”과 “만복사저포기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실적 질곡에 의해 가로막힌 남녀의 만남을 낭만적인 명혼 모티프를 매개로 하여 그려낸 것이다. 이 명혼 모티프는 현실적 질곡을 넘어서 평등한 만남을 바라는 서사문학 향유층의 낭만적 세계관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체적인 작품 형태로 수용되면서 이야기 향유층의 세계관에 따라 각기 상이한 서술시각에 의해 각이한 형태로 형상화되면서 장르적 분화 양상을 보인다. 서사세계에 전개되는 사건의 구성 요인으로서 등장인물들의 욕구와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적 질서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기적 설화와 전기적 소설의 분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의지를 가로막는 사회적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지배계층의 세계관을 갖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의 질곡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서술자는 서사세계의 사건을 기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야기가 전기적 설화 형태를 지니게 되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의지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로막는 현실적 질서를 타파되어야 할 질곡으로 인식할 때 서사세계의 갈등적 성격이 부각되게 되어 이야기가 소설적 형상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사세계에 설정된 등장인물의 현실적 처지, 그들의 의지를 가로막는 사회제도의 성격,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세계관의 관계 속에서 전기적 설화와 전기적 소설의 장르의 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15~16세기에 나타나는 명혼소설의 발생기의 소설로서 시대적 성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전기에

소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생규장전>에 형상화된 바처럼 사대부 내의 계층분화로 인한 양반층 내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함으로써, 소설 발생의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의 이생은 물론이고, <만복사저포기>의 양생, <하생기우전>의 하생 뿐 아니라, 《수이전》의 일문이 연변되다가 조선전기에 소설적 형태를 갖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최치원>의 최치원의 모습은 모두 조선전기의 양반층 내부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생산된 소외된 지식인의 모습이다. 이들 15~16세기의 소외된 지식인들은 명혼소설의 형상화 방식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현실세계에서 소외되어 나가는 자신들의 처지와 그것을 유발시키는 당대 사회질서의 질곡적 성격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현실적 처지에 대한 자각이 소설 속에 형상화된 갈등적 상황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계층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낭만적인 형태의 비판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명혼소설과 같은 낭만적 소설 형식을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전기 소설 향유층의 낭만적 의식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점차로 약화되어 현실세계의 질곡을 보다 현실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것의 극복전망에 대한 낭만적 전망을 탈피함으로써 소설에서 보다 사실적 경향의 소설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비극적 구성을 갖는 <운영전>과, 낭만적 경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지만 사실적 경향이 보다 농후해진 <주생전>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소외된 지식인의 사실적 시각이 후대 소설사의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는 민중층의 낭만적 시각과 결합된 <최척전>의 경우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15~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는 소설사의 한 흐름이 양반층 내부의 계층적 분화 양상과 그것의 질곡적 성격을 문제삼는 것이었다면, 17세기 이후 소설사에서는 소설의 주된 향유층이 민중층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세사회의 본질적 구조에서 야기되는 소설적 형상을 창출하게 되어 본격적인 소설사의 막을 연 민중적 낭만주의 경향, 또는 민중적 사실주의 경향의 심화, 또는 민중적 낭만주의와 지배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관념적 경향의 노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설사적 흐름에서 볼 때, 15~16세기의 명혼소설은 소설 향유층으로서의 비판적 지식인의 형성기에, 이들 소외된 비판적 지식인의 낭만적인 세계관이 명혼모티프를 매개로 하여 형상화된 조선전기의 지식인적인 낭만적 경향의 소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